

# 국토의 알레고리, 한라산\*

— 정지용의 「백록담」에 대한 소고

김복희\*\*

## 차례

- I. 들어가며
- II. 산문시형과 자연에의 도전
- III. 피로의 체험—국토의 알레고리인 한라산
- IV. 나가며

## ● 국문초록

「백록담」은 정지용이 본격적인 산문시형의 시를 창작해내던 시기에 발표된 시이다. 「백록담」은 정지용이 창작한 다른 산문시형과의 연계성, 독자적인 한 사람의 시인이면서 조선 시단의 거두였던 정지용의 자리와의 관련성, 당시 국토 순례 기행의 일환의 분위기라는 세 자장 안에서 파악해야 그 면모가 좀 더 온전히 드러나는 시이다. 당시 정지용은 조선 문단의 영향력 있는 시인으로서 스스로 부과한 이중의 요구에 봉착한 상태였다. 새로운 시를 쓸 것, 그리고 조선의 시를 쓸 것이 바로 그 이중의 요구였다.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전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H1A2A1018815).

\*\* 고려대학교

래의 시와 다른 시를 써야하면서도, 조선의 현실과 조선만의 고유한 시를 써야한다는 것은 정지용이 익숙하게 써왔던 운문시형이 아닌 산문시형으로 시를 쓰면서, 그 안에 상고주의적 자연이 아닌 새로운 자연을 묘사하도록 했다. 정지용이 이 요구에 도전한 시편들이 『백록담』에 실린 산문시형의 시들이다.

본고는 그 산문형의 시들 중에서도 『백록담』만이 숫자를 통해 분절된 형식을 피하고 있다는 점과 제목과 시 속의 내용을 통해 뚜렷하게 기행의 흔적을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문시와 구별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백록담』에 실린 그의 다른 산문시들은 대개 하나의 서사를 가진다. 그 서사 속에서 ‘자연(산)’은 삶이나 죽음과 같은 초역사적인 주제를 상징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다소 관념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반면, 『백록담』은 당시의 조선의 상황이 녹아 있으며, 시인의 산행 체험이 결합되어 있어 다른 산문형의 시들과 달리 구체적인 공간으로 드러난다. 『백록담』은 당시 국토의 상황을 한라산이라는 조선의 부분을 가지고 알레고리적으로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해석은 『백록담』의 연을 분절시키는 숫자의 표지를 순서대로 산에 오르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읽는다면 시체의 흔재와 풍경의 흔재 양상을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읽어내기 어려워진다. 본고는 이 시가 이미지가 병렬 형태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고 숫자의 순서대로 시를 읽지 않고, 이 시를 이미지 단위로 다시 해석하였다. 특히,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등장한 시적 주체의 ‘피로’에 대한 언급은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피로’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본고는 『다도해기』에 언급한 ‘피로’에 대한 부분과 첫 연과 마지막 연 사이에 시적 주체가 묘사한 이미지와 정감을 비교하였다.

정지용이 체험한 ‘백록담’은 국토가 결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자연을 마냥 즐기기에 그곳은 ‘소’로 표상되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아름다운 국토는 여전하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때문에 시적 주체는 백록담이 절대적인 안식의 요구인 기도가 불가능한 공간임을 깨닫는다. 1연에 등장한 산행의 체험과 완상의 즐거움으로 인한 기분 좋은 피로에 대한 기대는, 그 아름다운 국토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 받아야 하는 조선의 실상을 알게 하는 체험 속에서 9연에

이르면, 쓸쓸한 얼굴을 백록담에 비취 보일 수밖에 없는 극심한 피로로 보답 받을 수밖에 없다. 『백록담』은 정신을 고조시키는 공간이라기보다, 국토의 아픔다움을 느끼면서도 그 국토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시적 주체의 피로의 공간이며 당대 국토의 현실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 I. 들어가며

정지용(1902~?)의 『백록담』(『문장』, 1939.4)<sup>1)</sup>은 그간 연구자들에 의해 정신주의적 해석 맥락 속에서 투명한 의식의 극치<sup>2)</sup>로 해석되거나, 시선 주체의 지위를 허무는 미적 근대성의 성취<sup>3)</sup>, 자기정체성의 분열의 체현<sup>4)</sup>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는 정지용의 시세계를 그가 다루는 대상과 결부하여 그 시 정신의 변모에 따라 ‘바다’시편-‘종교’시편-‘산’시편으로 파악하며 제출된 해석이다.<sup>5)</sup> 특히, 『정지용 시집』(시문학사, 1935.10)에서 보이는 감각적인 이미 지즘이 『백록담』(문장사, 1941.9)에 이르러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견인의 정신으로 이겨내는 ‘정신주의에의 침잠’을 시도했다는 것으로<sup>6)</sup> 즉, 그 시적 정신

- 1) 본고에서 정지용 작품 인용은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과 “김학동 편, 『정지용 전집 2-산문』, 민음사, 2003”을 기본으로 한다. 인용 시 각각 “『시집』”과 “『전집 2』”의 쪽수로 표기한다. 단, 작품 발표 시기와 발표 지면은 각 작품 인용 시 부기하고, 논의 전개 상 필요한 경우 발표 당시 지면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 2) 최동호, 「정지용의 「장수산」과 「백록담」, 『정지용 시와 비평의 고고학』, 서정시학, 2013.
- 3) 이광호,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선 주체의 형성과 변이」, 『어문논집』 제64호, 민족어문화회, 2011.
- 4) 김신정, 「정지용 시에서 ‘감각’의 의미」,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153-200쪽.
- 5) 이승원은 정지용의 시작 단계를 시의식의 형성, 발전과 관련지어 휘문고보 재학 시부터 일본 유학 시절까지를 제1시기, 귀국 이후 『정지용 시집』을 간행할 때까지를 제2시기, 『정지용 시집』 간행 이후를 제3시기로 나누는데, 정지용의 시세계를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는 것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이승원, 「초기시와 시의식의 형성」,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63-94쪽).
- 6)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민족문화연구』 제1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6, 79-80쪽 참조.

이 변모하였음을 밝히고 그 정신의 요체를 파악하는 것이 그간의 연구의 주된 동향을 이루었다.

『백록담』(1941.9)은 해방 후 정지용의 “『백록담』을 내놓은 시절이 내가 가장 정신이나 육체로 피폐한 때다. …(중략)… 그러나 모든 것을 환경과 생활에 책임을 돌리고 돌아앉은 것을 나는 고사하고 누가 동정하랴? 생활도 환경도 어느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 친일도 배일도 못한 나는 山水에 숨지 못하고 들에서 호미도 잡지 못하였다.”(『조선시의 반성』, 『문장』, 1948.10)<sup>7)</sup>라는 회고 덕분에라도 소극적 저항주의로 민족의식을 보였다는 식으로 평가받는 시집이기도 하다. 때문에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백록담』은 정지용의 시사의 변모를 적실히 보여주는 작품이자 정신주의적 지향의 정점으로 시사적 위치를 인정받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정지용의 시적 정신이 변모한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공과에 주목하느라, 식민지 시기 『문장』지의 거두로 활동하였던 정지용의 문단에서의 위치라는 외부적 조건과 자신만의 시에 대한 개성 혹은 정열의 발현이라는 시인 내부의 욕망을 동시에 조망하지 않고, 시 전체 내용을 해석하기보다, 백록담에 오르는 절정의 순간만을 선택적으로 부각시켜 해석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였던 『문장』지의 성격과 그가 시에 직접 사용한 고어들 때문에 그의 시의 변모가 소재 차원을 넘어 그의 시의 주제 차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설을 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카프의 해산 이후 명실상부한 문단의 거수였던 이른바 ‘문장파’가 갖고 있는 동양정신의 추구가 무엇이며, 거기에 정지용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운 점<sup>8)</sup>, 『백록담』에 실린 대부분의 시들이 주로 산의 정경을 다

7) 『전집 2』, 349쪽.

8) 황종연은 ‘문장파’의 상고주의가 유교적 역사관의 정통인 복고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그 어떤 실천적 목적의식과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장파의 상고주의가 ‘소극적 민족주의’로 선불리 파악될 수 없는 까닭을 밝힌다. 즉, 조선시대의 심미적 문화에 대한 문장파의 선택적인 친화는 주관적인 기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현실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이병기, 이태준, 정지용이 문장지에 발표한 글들을 살펴피짚은 바 있다(황종연, 『『문장』과 문학의 정신사적 성격』, 『동악어문학』 제21호, 동악

루고 있기는 하지만, 난해시로 정평이 나 있는 『유선애상』(『시와 소설』 1호, 1936.3)과 『파라솔』(『중앙』 32호, 1936.6) 역시 함께 실려 있는 점, 산문시편의 집중적인 등장<sup>9)</sup> 등이 그의 시시계가 완전히 변모했거나 이미지즘에서 정신주의로의 발전 방향을 따라 진행됐다는 식의 단언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백록담』의 전반적인 구조가 산의 등정 체험을 순차적으로 묘사했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정신의 상승 일변도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그 해석의 잉여로 남기기에<sup>10)</sup> 『백록담』을 동양적 정신에의 상승의 추구로만 그 해석을 확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고는 정지용의 『백록담』이 정지용의 시사 속에서 특별한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기존 논의에 동의하면서, 『백록담』의 해석 과정에 정지용의 시들 중 산문시형 간의 연계성과 제주도 체험이 녹아 있는 『다도해기』 기행문과의 연계성을 더하고자 한다. 『백록담』은 정지용이 본격적인 산문시형의 시를 창작해내던 시기의 시이면서도, 그 산문형의 시들 중에서도 숫자를 통해 분절된 형식을 피하고 있다는 점과 제목과 시 속의 내용을 통해 뚜렷하게 기행의 흔적을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문시와 구별된다. 본문에서 상술하겠으나, 『백록담』에 실린 그의 산문시들이 대개 하나의 서사가 있고 그 서사의 방향이 삶이나 죽음과 같은 초역사적인 주제를 상징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자연(산)을 관념적으로 사용했다면, 『백록담』은 조선이라는 역사 속에서의 당시 국토의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도한 바가 다르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짚었던 사실 중 하나로 『백록담』은 당시 조선에서 문인들로 하여금 국토기행을 다녀온 후, 국토의 아름다움 혹은 조선의 고유성을 특

어문학회, 1986.10).

- 9) 사나다 히로코는 『백록담』에 실린 정지용의 산문시들이 ‘간접적인 사회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백록담』만은 가톨릭 정신의 변용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다(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2002).
- 10) 이성우는 “『백록담』에 이르는 길에서 마주치는 온갖 대상들이 사실은 시적 자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고 있기에 “정신의 고양이나 상승은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백록담』을 평한다(이성우, 『높고 쓸쓸한 내면의 거울』, 최동호·맹문제 외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2003, 199-212쪽).

화하려던 당대의 흐름<sup>11)</sup> 속에서 창작된 시이다. 그런데 정작 정지용이 직접 서술한 기행문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를 해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12)</sup> 한라산 등정 체험 이후의 정감이 녹아 있는 기행문인 「다도해기」를 참고한다면 그간 마지막 연만을 주목하여 해석해왔던 「백록담」의 부분 부분들을 좀 더 일관성 있는 해석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 선을 짚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백록담」의 해석 과정은 정지용에게 있어서 과연 1930년대 후반 새로운 조선의 시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는 작업의 시초가 될 것이다.

## II. 산문시형과 자연에의 도전

산문시가 무엇인가 하는 장르적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구태여 정의하자면, 한국에서 산문시란,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줄글 형식으로 된 시들, 운율을 배제한 시들을 범칭한다.<sup>13)</sup> 사나다 히로코는 정지용의 산

11) 1920년대 ‘국민문학파’의 등장과 활동의 맥락에서 최남선이 주창했던 ‘조선심’, ‘조선혼’을 위시한 조선에 대한 향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향수 현상은 30년대에 이르면 식민지라는 조건, 여행이라는 낭만적 상상, 식민지 자본주의 하의 부르주아적 취미 동경 등과 얽혀 ‘명승지 탐방’과 같은 기획 하에 주로 수필을 통해 다뤄진다. 이 수필들은 일상을 탈출한 도시인들이 조선에 있으나 조선인이 잊어버리고 있던 낙원을 발굴하고 그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소비시키는 방식을 취한다(김윤경,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의 기행산문 연구」, 『비평문학』 제5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5.3. 참조).

12) 부분적인 논의로 김진희의 것을 참고할 만하다. 김진희는 백석과 정지용을 비교하며, 정지용이 일제 말기 조선적이며 전통적인 시학을 추구했고, 그것이 여행의 체험을 통해 “정지용에게 ‘나’의 시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조선’의 미의식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기행산문을 인용하며, 정지용의 기행 시편을 분석하였다(김진희, 「나-조선의 발견과 시의 탄생-정지용과 백석의 기행산문과 시」, 『서정시학』 제22권 3호, 2012.9, 24-37쪽 참조).

13) 산문시에 대한 논의로 1910년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 산문시의 형성과정을 논의하는 장만호의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산문시의 개념이 자의적이고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게 지적되어 왔음을 산문시 개념과 그 개념의 형성 조건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산문시’라는 장르가 역사적 개인의 복합적 내면의 결과물이었음을 상술한다(장만호, 「한국 근대 산문시의 형성과정 연구-1910년대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신지연은 1920년대 「신시논쟁」에서 현철과 황석우, 미세의 논쟁 양상을 살피며 산문

문시들을 다소 ‘서정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성을 상징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평하며, 1930년대 일본에서 기타카와 후유히코의 ‘신산문시 운동’이 전개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언급한다. ‘신산문시 운동’은 “시니 피앙보다 시니피에를 중요시하는 형식”이며, “강한 사회비판성”을 띠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sup>14)</sup> 정지용의 산문시들을 일본의 ‘신산문시 운동’과 완전히 결부하여 해석할 수는 없지만, 파시즘 일변도로 치닫던 당대에 일본에서 산문시가 태동했던 상황과 그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식의 이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앞서의 논의들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산문시를 정의해보자면, 산문시란 형식상 운문시와 달리 운율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용상으로도 사회비판적인 목소리를 띤 시를 의미한다. 전쟁협력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던 여타 일본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지용 역시 전쟁협력, 친일협력의 시가 아닌 자신만의 ‘시’를 쓰고 싶었다고 할 때, 그가 선택해야 했던 길은 이중의 그물 속에 있었다. 그는 식민지배 하 조선의 『문장』지의 영향력 있는 문인으로서의 정지용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이미지 안에서 그만이 쓸 수 있는 시어와 시형의 모색을 해내는 시인이어야 했을 것이다.

근대의 새로운 장르로 등장한 ‘시’가 종래의 조선적 문학적 전통에서 비롯한 시조나 가사와 그 연관선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정지용은 ‘시’라는 장르가 갖는 형식의 새로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전래의 한문이 아닌 근대 언어에 대한 인식은 형식면에서도 새로움을 요청했고, 곧 내용면에서도 새로움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했다.<sup>15)</sup> 현대 조선시를 어떻게 보느냐는 박용철과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그는 시 장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에 대한 의식을 밝

---

시에 대한 정의가 곧 ‘조선에서의 시란 무엇인가’라는 논의와 연결되고 있음을 밝힌다. 다시 말해, 산문시라는 것의 요체는 곧, ‘조선에서의 시 쓰기’의 정체에 대한 당대 문학인의 곤혹스러움을 노정한다고 볼 수 있다(신지연, 『신시논쟁(1920-21)의 알레고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14) 사나다 히로코, 위의 글, 207-208쪽 참조.

15) 조선어의 리듬과 근대적 시형식의 창출에 대한 정지용의 의식과 특기할 만한 성취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재연의 것을 참고할 만하다(하재연, 『근대시의 모험과 움직임은 조선어』, 소명출판, 2011).

히고 있다.

“대체 東京 文壇에는 新體詩의 時期가 있고, 그다음에 自由詩가 생겨서 나중에는 民衆詩의 무엇이니 하는 一種의 混沌時代를 나타내었지마는 우리는 新體詩의 時代가 업었습니다. 잇다면 六堂이 詩를 쓰는 時期알까. 何如間 우리는 新體詩의 時代를 겪지 못했으므로 朝鮮서는 詩로 드러가는 것이 넘우 빨릿고 또한 詩가 서는 것이 넘우 일직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詩가 이리케 일즉이 섰으면서도 本質的으로 優秀한 點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말이 優秀하다는 것인데 첫째 聲響이 豊富하고 文字가 豊富해서 우리 말이란 詩에는 先天的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후략)…”

— 「詩文學에 對하야」 부분(『조선일보』, 1938.1, 강조-인용자)<sup>16)</sup>

시인의 자질, 시 창작의 특징 등, 후일 『문장』에 발표한 여러 편의 시론에 앞서서 정지용의 시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담이다. 여기서 조선어가 시에 적절하다는 그의 언급과 더불어 주목할 곳은 조선의 문단이 ‘신체시의 시기’ 없이 ‘시’를 맞이했다는 부분이다. 여기서 정지용이 말하는 ‘시’는 동경 문단과 비교했을 때 ‘자유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자신이 쓰는 시이며, 당시 서정시를 의미하기도 했을 것이다. 또한 이 단절에 대한 인식에는, 신체시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까닭이 ‘우리 말’의 시에 적절한 특질이 있다는 의식 또한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말’은 소리의 울림이나 문자의 풍부함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한문이 아니라 한글을 의미한다. 30년대 중반 이후는 한글맞춤법이 어느 정도 정돈된 상황이었다.<sup>17)</sup> 한글맞춤법이 정돈과 더불어 그 한글을 운용한 양질의 문학작품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최재서가 『정지용 시집』을 고평하는 요소로 “순수한 조선말의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과 “그의 손에 들어갈 때 조선 말은 참으로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sup>18)</sup>을 꼽았듯이 정지용은 조선의

16) 『전집 2』, 383-384쪽.

17) 1933년 10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고, 1936년 10월 「사정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표되었다. 1937년에는 최현배가 문법을 정리한 『우리말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18) 최재서, 「作家에의 眞言狀\_文學作家知性 (2)」, 『동아일보』, 1938.8.21.



‘말’을 통해 조선에서의 시 장르가 확립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 근대 조선의 ‘말’을 사용하며, 조선말을 시어로 사용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그가, 내용면에서 근대 이전의 봉건적 사회에서 추구하던 식의 상고주의를 추구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또한 그의 앞서의 시작 활동이 이미지즘에서 시작했음을 돌아볼 때, 그가 돌연 상고주의적 면모로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순회했다고 보는 것 역시 어색하다. 앞서의 대답 중 정지용은 박용철이 “詩가 앞으로 東洋趣味를 取할 것인가?” 묻자, “우리는 그러케 깊히 생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란 본래 그러케 무슨 思想이나 計劃을 세워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니까.”<sup>19)</sup>라고 답한다. 즉, 정지용은 문장파로 대별되는 “고전부흥론”의 발상 속에서 전통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조선시를 창작해내고자 했다.<sup>20)</sup> 특히 이 점은 김신정<sup>21)</sup>이 내간체라 밝힌 바 있는 산문(수필)에서의 정지용의 어미활용의 더불어, 고어 투 활용이 두드러진 시편들, 조선의 자연을 전면적으로 그 시적 소재로 차용한 산문시에서 잘 드러나는 점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전래의 글쓰기 방식 차용을 복고 취미로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당대 식민지에서 주목받던 시인의 고뇌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도전일 수 있었으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시라는 장르가 어느 정도의 언어 양식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시인의 노력으로 보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지용의 산문시의 독특성은 정지용의 시인으로서의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나 독자성 모색과 떼어 수 없는 지점이다.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 ‘자연’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는 강호가도를 다루는 15세기 이후의 시가 문학 속에서였다. 윤리적 규범으로 표현되던 자연은 김소월부터 해서 조선의 문인들에게 과거의 것과 다른 차원의 자연으로 선택

19) 『전집 2』, 385쪽.

20) 하재연, 위의 글, 194-197쪽 참조.

21) 정지용의 내간체 문장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김신정의 것을 참고할 만하다(김신정, 「내간체 산문과 새로운 글쓰기의 실험과정」, 위의 글, 233-256쪽).

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자연은 인간과의 합일을 거부하고, 저 홀로 존재하며, 인간을 좌절시키는 무한한 형이상학적 의미의 공간으로 표상된다.<sup>22)</sup> 그러나 정지용의 경우, 자연은 “개념의 현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으로 나타난다. 근대 문학에서 풍경의 발견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시점화의 방법에 의해 주체의 정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sup>23)</sup> 즉, 정지용의 자연은 『백록담』에 이르러서도 그간의 논자들의 평대로 감각적이고 낮은 언어들로 인해 그 물질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자연이었다.

자연은 근대인이 체험한 실제 ‘감각의 공간’이었다. 근대인들은 선인들이 닦아놓은 감각의 길을 거부하고 개인이 느끼는 개성적인 감각을 통해 새로운 감각의 길을 열며, 자신을 비로소 자연과의 합일에서 떨어뜨려 주체의 자리에서 서는 것이다. 산문형의 시들 중에서도 정지용의 『백록담』은 시적 주체의 한라산을 동반하는 감각적 체험을 보여주면서도 그 자연을 다른 무엇의 알레고리로 나타내어 정지용 시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백록담』에 실린 다른 산문시들은 대개 하나의 서사가 있는데 그 서사의 방향은 ‘삶’이나 ‘죽음’과 같은 초역사적인 주제를 상징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자연’(산)을 다소 관념인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반면, 『백록담』은 그 시적 주체의 실제의 동반 체험이 다른 자연을 다룬 시편과 달리 두드러지게 등장하여, ‘백록담’을 단순한 감각적 기교의 백미를 표출한 곳으로 보기도 어렵게 하고, 정신적 가치나 도가 구현된 공간으로서의 자연으로 보기도 어렵게 한다.

정지용이 구체적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여섯 편의 시들<sup>24)25)</sup> 또한 모두

22) 이남호,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 유종호 외 31인, 『현대 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382-284쪽 참조.

23) 김신정, 위의 글, 100-103쪽 참조.

24) 「장수산 1」(『문장』, 1939.3), 「장수산 2」(『문장』, 1939.3), 「백록담」(『문장』, 1939.4), 「비로봉」(『조선일보』, 1937.6.9, 『청색지』, 1938.8. 재발표), 「구성동」(『조선일보』, 1937.6.9, 『청색지』, 1938.8. 재발표), 「옥류동」(『조광』, 1937.11)

25) 문혜윤은 정지용의 시작(詩作) 초기에 두드러지던 ‘바다’에 관한 관심이 후에 ‘산’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면서, 그의 ‘바다’가 다소 추상적인 바다로 ‘이름이 없던 공간’이었던 것에 반해 ‘산’의 경우 ‘이름을 가진’ 공간으로 드러남을 지적한다. 그는 「장

정지용이 기행의 체험이 녹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sup>26)</sup> 그러나 「백록담」 외의 다른 시들에서는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등정의 체험이 드러날 만한 시적 주체 ‘나’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백록담」은 시적 주체 ‘나’의 등정 체험이 시의 전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면서 구체적인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같은 시기 발표된 산문형의 다른 시편들<sup>27)</sup>이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채, 자연이 다소 관념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 특정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폐쇄적이며 적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된 것과 달리<sup>28)</sup> 「백

수산 2」를 분석을 통해 정지용이 조선의 땅을 여행하면서 ‘조선시’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려고 했음을 정지용의 언어 형식 실험과 결부하여 논증한 바 있다(문혜운, 「국토 여행과 ‘조선시’의 형식—정지용의 「장수산 2」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12).

- 26) 정지용은 1936, 1937년 금강산을 두 번 다녀왔는데, 이는 그의 수필 「愁離語Ⅱ-3(內金剛素描 1)」, 「愁離語Ⅱ-4(內金剛素描 2)」(『조선일보』, 1937.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7) 「온정」(『삼천리문학』, 1938.4); 「삽사리」(『삼천리문학』, 1938.4); 「장수산1」(『문장』, 1939.3), 「장수산 2」(『문장』, 1939.3); 「백록담」(『문장』, 1939.4) 「도굴」(『문장』, 1941.1, 『백록담』에 실리지 않았으나, 산문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던 시기와 그 발표시기가 겹친다) 「나비」(『문장』, 1941.1); 「진달래」(『문장』, 1941.1); 「호랑나비」(『문장』, 1941.1); 「예장」(『문장』, 1941.1)
- 28) 「온정」은 “시의 상황이 처음과 결미 부분을 볼 때 단순한 현실적 재현이 아니며, 시의 제목과 결미를 참고하여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정서에 대한 형상화로 추측된다.”(김문주, 「존재의 원천에서 솟아오르는 고독의 비애」, 최동호·맹문제 외, 위의 글, 173-183쪽.)

「삽사리」는 그대에 대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발화할 수 없는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이지 않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 보여준다. 이 시는 “우화의 발화”로 독해되며 이 우화는 “발화의 정치성을 탈각”시킬 수 있었던 정지용의 일종의 수법으로 평가받는다(장석원, 「웅크린 시인과 ‘우화’의 문제」, 최동호·맹문제 외, 위의 글, 161-171쪽).

「도굴」 역시 구체적 시공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관’이라는 인물의 시선과 산삼을 캐고자 했던 노인의 꿈이 좌절된 상황을 병치시켜 보여주고 있어, 체험으로서 자연을 나타내기보다는 욕망의 좌절이라는 보편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자연물을 이용한다(이경수, 「열린 액자의 구조」, 최동호·맹문제 외, 위의 글, 274-290쪽).

김학동은 「예장」과 「호랑나비」에서 죽음이 그 시적 풍경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김학동, 「언어의 감각미와 ‘허정무위’의 세계」,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97, 87-88쪽). 이승원 역시 두 작품에 자연의 순환과 동화된 정결한 죽음을 읽어냈다(이승원, 위의 글, 175-179쪽).

위에 언급한 산문시 모두 구체적인 풍경의 묘사보다는 자연을 소재적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삶, 죽음, 사랑’과 같은 초역사적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록담』의 자연은 산을 그저 배경만으로 두지 않았다. 『백록담』은 백록담을 포함하는 한라산의 다채로운 면모와 산에 사는 물속들의 면모, 산에 오르는 주체의 정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다른 산문형의 시에 비해 자연을 열려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열려있는 공간은 시인으로서 정지용이 추구하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백록담』은 정지용이 그 자신으로서 조선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시인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의 정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준다. 본고는 정지용의 산문시들이 대개는 외적 참조물 없이도 해석되지만, 『백록담』만큼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시인의 상황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지점들이 많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이 시를 국토<sup>29)</sup>의 알레고리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상징은 초역사적이고 통합적이지만, 알레고리는 시대적이고 파편적이다. 상징은 인류학적이지만 알레고리는 문화적이고 사적이다.”<sup>30)</sup> 즉,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나 가치는 상징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시의 외적 참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시의 바깥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참조물이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해진다.<sup>31)</sup>

29) 1920~1930년대 ‘국토’의 개념은 최남선, 안재홍, 정인보와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나 이광수, 이은상과 같은 민족주의 문학자들이 쓴 국토기행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승지의 탐방을 통해 민족의 자기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는 ‘국토’가 단순히 지리적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이데올로기를 호명하는 민족주의를 띤 모종의 개념임을 짐작하게 한다(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근대 국토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제27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12. 참조). ‘국토’는 당대 문인들의 민족주의적 고투는 물론이며, 식민지 현실의 현장성, 근대 nation이라는 개념까지 혼재되어 있는 생생한 개념이다. 본고에서 사용할 ‘국토’ 개념은 이 민족주의자들의 호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태여 이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정지용이 수필을 쓸 당시 대부분의 민족주의 문학가들이 사용하던 ‘국토’라는 개념의 자장 안에서 자유롭게 읽었을 것이며, ‘낙토(樂土)’나 ‘고토(故土)’란 말을 쓰기에는, 정지용이 자신의 시에서 과거의 조선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지용이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같은 민족주의적 개념을 함의한 채 시를 창작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수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 개념을 함의한 채 게재했을 가능성은 검토해볼 만하다.

30) 황현산, 「불모의 현실과 너그러운 말」, 『잘 표현된 불행』, 문예중앙, 2012, 72쪽.

31) 권혁웅은 황현산의 논의를 이어받아, 그간 상징에 비해 평가절하 되어오던 알레고리의 가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상징과 알레고리는 살아있는

어쩌면 모든 시가 당대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되기에 외적 참조물이 필요하며, 알레고리적 자장에서 해석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해왔듯이 『백록담』은 정지용이 창작한 다른 산문시형과의 연계성, 독자적인 한 사람의 시인이면서 조선 시단의 거두였던 정지용의 자리와의 관련성, 당시 국토 순례 기행의 일환의 분위기라는 세 자장 안에서 파악해야 그 면모가 좀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 Ⅲ. 피로의 체험—국토의 알레고리인 한라산

정지용이 『백록담』 등의 산을 소재로 한 시를 쓰기 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주도한 국토기행의 기획으로 기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기행산문 「다도해기」(『조선일보』 1938.8.23~30)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도해기」를 『백록담』을 해석하기에 앞서 한라산 등반의 체험을 부기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시 해석에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sup>32)</sup> 1930년대 당시 서울 사람들은 제주도에 대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자본의 침윤을 받지 않은 순수한 회복의 땅, 낙토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sup>33)</sup> 정지용 역시 제주도에 대한 조선인들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제주도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고, 그것을 산문으로도 언급한다. ‘離家樂—海峽病 1—2—失籍島—一片樂土—歸去來’로 이어지는 기행문에서 정지용은 여행의 즐거움과 제주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산문에서 제주도에 대한 기대는 제주도에 닿기도 전에, 제주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라산 영봉을 보며 그 기

것/죽은 것의 가치판단의 맥락 속에 기입되는 방식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권혁웅, 「10장 좌표」, 『시론』, 문학동네, 2010, 392-415쪽 참조).

32) 하재연은 『백록담』을 해석하며 산문을 부기하여 정지용이 제주도를 “지리와 인화로 생동하는 남녀노소는 하늘이 내린 민족”이 머무르는 “낙토”의 이미지로 구축하고 있음을 언급한다(하재연, 위의 글, 198-200쪽 참조).

33) “기후까지도 좋아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괴로운 일이 도모지 없습니다.”(『유치원에서 본 그 지방이야기』, 『동아일보』, 1934.8.2); “삼신산의 하나로 유명한 영주산이란 탐라 고국제주도를 조선의 새로운 관광지로 인식하게 되어”(『바다의 조선명소로 제주도등장』, 『동아일보』, 1935.3.20)

대와 섞여 나타난다. 그러나 산문의 발표 이후, 정지용의 ‘백록담’ 혹은 ‘한라산’은 제주도라는 이상적인 낙토, 관념의 상징적 공간을 넘어서서 당대 국토의 알레고리로 표현된다. 무엇이건 간에 어떤 체험 이후 그것이 시로 창작되는 것은 거개의 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일 것이다. 2절에서 언급했던 박용철과의 대담 중 정지용은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박 : 그러면 詩가 그러케 되어서 表現까지 이르는 經路는 엇더케 됩니까?

정 : 처음에 想이 올대는 맞치 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떨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詩를 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붓을 드는데 그때는 整理期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機會를 기다려야지요 애를 배어도 열달을 기다려야 사람의 本體가 생기드시 詩도 댄 뒤에 相當한 時期를 經過해야 詩의 本體가 생기는데 그 時期를 기다리면서도 늘 손질은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彫像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아모리 손질을 해도 決코 人工的인데가 업는 것이 아닙니까.

— 「詩文學에 對하여」 부분(강조-인용자)<sup>34)</sup>

“인슈퍼레-슌”이 시가 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정지용은 체험이 시간을 두고, 시인의 심급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체험이 그러하겠지만, 다른 시편에서의 자연 체험은 시인의 등정 체험에만 멈춰있거나 (『꽃과 빛』), 등정의 체험은 물론 시적 주체 ‘나’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 관념적 차원의 수준에서 상상된 폐쇄적이고 고요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데 반해 『백록담』만은 시 전면에서 시적 주체 ‘나’를 포괄하면서 ‘백록담’으로 비롯되는 한라산을 시적 대상이 아닌 시적 주체의 위치로 세운다.

이 시가 한라산 등반의 체험과 연관된다는 것은 선행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광호도 언급했듯이 등반하는 시적 주체의 신체적 감각이

34) 『전집 2』, 386쪽.

도처에 나타난다. 이 시적 주체는 한라산에서 겪을 수 있는 ‘죽음’과 ‘삶’의 대비,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모두 동원하여 체험한다.<sup>35)</sup>

여기서 정지용은 신체의 감각과 내면을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시제를 혼재하여 사용한다. 체험들을 한 연 속에서 이미지로 응축시키는 동시에 현재형의 어미와 과거형의 어미를 교차시키는 방식을 통해 시적 자아의 감정적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도 풍경의 객관적 묘사를 잃지 않는다. 시적 주체는 산에서 본 감각적인 풍경들을 현재형 어미를 통해 현재화하면서, ‘나’가 산을 오르며 느낀 육체의 피로와 정감을 과거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배치한다.

1

絶頂에 가까울수록 뽕쑥채 꽃키가 점점 消耗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박한다. 바람이 차기가 威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뽕쑥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뽕쑥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긔서 기진했다.

2

巖古蘭, 丸藥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어 일어섰다.

3

白樺 옆에서 白樺가 髀體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白樺처럼 될것이 승없지 않다.

35) 이광호는 「백록담」에서 시선의 모험이 몸이 직접적으로 자연과 접촉하는 신체의 모험이 된다고 해석하며, 시의 후반부에 가면 시적 주체가 모든 감각을 잃고 의식의 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한 자기 망각의 상황에 다다른다고 본다. 그러면서 근대적 의미에서 의식의 주체가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었다면, 정지용의 「백록담」의 주체는 자신의 의식을 탈각시키며 미학적 개별성을 성취했다고 평가한다(이광호, 위의 글, 258-259쪽).

4

鬼神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모퉁이,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날린다.

5

바야흐로 海拔六千呎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아니너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걸에 山길 百里를 돌아 西  
歸浦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움매-움매-울  
었다. 말을 보고도 登山客을 보고도 마고 매어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  
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것을 나는 울었다.

7

風蘭이 풍기는 香氣,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濟州희파람새 희파람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굴으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좌-좌- 솔소  
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년출 기  
어간 흰돌바이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조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石茸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高山植物을 새기며 醉하며 자며 한다. 白鹿潭 조찰한 물을 그리여 山  
脈우에서 짓는 行列이 구름보다 莊嚴하다. 소나기 늦녓 맞으며 무지개에 말  
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익어 불인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끼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不具에 가깝도록 고단  
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  
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있었더니라.

— 「백록담」, (『문장』 제1권 3호, 1939.4)<sup>36)</sup>

---

36) 『시집』, 194-197쪽.



먼저, 9에 ‘백록담’이 등장한다하여 이 시를 1부터 9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산의 높이를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든다. 숫자 순서대로 산의 고도에 따라 시적 주체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가 읽힐 근거가 시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숫자를 사용하여 자신이 한라산을 오르며 보았던 장면 장면을 완전히 분절하여 병렬시켜놓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에서 이미 백록담에 오른 시적 주체가 자신이 한라산에 오르면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을 2와 8까지에 중심 소재 단위로 묶어 병렬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시제가 뒤섞여 있고 시적 주체의 시선과 위치가 비약에 가까울 정도로 원경과 근경을 뒤섞은 상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지용이 산문에서 쓰고 있듯이, 한라산을 백록담을 위한 바탕자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한라 영봉의 오롯한 한 덩어리”로 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라산이 백록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록담 그 자체가 한라산이 되며, 한라산은 제주도를 은유한다.

“산이 얼마나 장엄하고도 너그럽고 초연하고도 다정한 것이며 준열하고도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오리까. 우리의 母陸이 이다지도 絶勝한 從船을 달고 엄연히 대륙에 기항하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土利는 사람을 위하여 그다지 후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사오며 제주도 는 마침내 한라 영봉의 오롯한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곳인데 산이 하두 너그럽고 은혜로워 산록을 둘러 人畜을 깃들이게 하여 자고로 넷 골을 이루도록 한 것이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돌을 갈아 밭을 이룩하고 牛馬를 고원에 방목하여 생업을 삼고 그러고도 童女까지라도 열길 물속에 들어 魚貝와 해조를 낚아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근로가 이와 같이 명쾌히 분방히 의롭게 영위되는 곳이 다시 있으리까?”

— 「多島海記5 - 一片樂土」 일부(강조-인용자)<sup>37)</sup>

아직 제주도에 당도하기 전, 추자도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중에 제주도에

37) 『전집 2』, 159-161쪽.

대한 그의 감상을 서술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정지용에게 한라산 자체이며, 한라산은 마치 아껴 모시는 ‘신부’와 마찬가지로 그림고 고우며 은혜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생활과 근로까지를 포용한 곳이 한라산이며 곧 제주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묘사와 더불어 “일편낙토”라는 말은 분명히 제주도를 생활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의미하는 바이다. 또한 조선반도를 “모륙”이라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어머니 땅은 제주도라는 “중산”을 달고 “대륙에 기항”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선을 대표할만한 근원적 공간은 아니지만, 그 섬은 조선반도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며, 대륙에 기항하고 있는 조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산”의 위치를 차지한다.

“해발 1950 米突이요 里數로는 60리가 넘는 산 꼭두에 千古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백록담 푸르고 맑은 물을 곱비도 없이 유유자적하는 牧牛들과 함께 마시며 한나절 놀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래 바닷이야기를 쓰기로 한 것이오니 섭섭하오나 산의 好消息은 할애하겠습니다. 혹은 山行 120리에 과도히 피로한 탓이나 아니올지 내려와서 하룻밤을 잘도 잤건마는 築港 부두로 한낮에 돌아다닐 적에도 여태껏 風蘭의 향기가 코에 알른거리는 것이요 고산 식물 岩高蘭 열매(시레미)의 달고 신맛에 다시 입안이 고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돌 위에 배낭을 베킴삼아 해풍을 쏘이며 한숨 못잘 배도 없겠는데 눈을 감으면 그 살찌고 순하고 사람 따르는 고원의 마소들이 나의 뇌수를 꿈과 같이 밟고 지나며 피꼬리며 휘파람새며 이름도 모를 진기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의 귀를 소란하게 하는 것이 아녘니까. 높은 향기와 아름다운 소리는 어진 사람의 淸德 안에 갖추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동방의 현인들은 적이 피로운 노릇이었을 것이, 내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날 모슨 덕과 같은 피로에 건딜 수 없는 것으로 놀려 짐작할 듯하옵니다.”

—「多島海記6 - 歸去來」 일부(강조-인용자)<sup>38)</sup>

그는 산행을 마친 다음, 바다에서도 산이 생각날 정도로 한라산에 매료되었음을 고백한다. 『백록담』에 나타는 높은 향기와 아름다운 소리에 취하여 거기서 헤어 나올 수 없는 나의 ‘피로’는 시의 전반을 지배하는 시적 주체의

38) 『전집 2』, 162쪽.

정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피로는 단순히 산행의 고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덕과 같은 피로’이다. 수필에 나타난 피로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백록담』의 시적 주체의 정감과 유사하다. 이 피로에 주목하여 시를 읽어야 할 것이다.

각 숫자에 맞춰 시를 분절하여 해석해도 무방하겠으나, 크게 그 묘사하는 소재의 단위로 시를 분절하면 1-4(초목)/5-7(우마)/8-9(백록담)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1에서 등장한 시적 주체의 피로가 각 숫자에 달려있는 정경 묘사 후 9에 이르면 ‘불구에 가깝도록’ 극심한 피로로 심화된다는 점이다. 피로의 강도가 세진 것은 1에서 9까지 등산을 하며 산의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묘사한 정경들이 일순 한꺼번에 그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1-4는 시 전반을 훑는 도입부로서 “절정”이라는 말과 그 묘사된 대상을 볼 때, 백록담 부근까지 올라간 시적 주체 ‘나’의 육체의 쇠진함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그 고도의 체험 도중 느꼈던 시적 주체의 감각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키가 큰 뽕꽃채 꽃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그 키가 작아져 꽃무늬가 되었다가 별처럼 그 꽃머리만 남아 흩어져 있음을 본다. 그 자리에서 별이 뜨고 별이 자리를 옮길 때까지 화자는 기진하여 지친 상태이다. 꽃의 묘사 부분은 현재형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이 지쳤다는 표현은 과거형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한라산은 신성하거나 정신적 질서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련의 공간도 아니다. 1-4까지 화자에게 일어난 사건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기력이 소진되었으나 산이 준 약 같은 “어여쁜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린 일이다.

5-7은 “바야흐로”라는 시어를 통해 앞의 산이 주는 생사에 대한 상념을 현실로 돌리면서, 제주인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라산의 마소에 대한 이미지 묘사와 그 이미지에 대한 화자의 감정의 소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한 소묘라기보다 들은 이야기를 옮긴 인상을 준다. 6연의 소가 서귀포로 달려갔다는 것이나 아기소가 아무에게나 매어달리는 모양을 묘사한 부분 이후 화자가 돌연 자신의 울음 체험을 털어놓은 것이 그러

하다. 그러면서도 7에서 “아롱점말” 자신을 피하지 않았음을 서술하고, 자신이 들은 목우의 이미지와 자신이 체험한 목우의 이미지를 겹치게 놓는다.

8에 이르러 나는 백록담 위로 퍼부어질 것인 소나기를 맞는 이 고산나물의 행렬을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구름보다 장엄”하다고 표현한다. “별과 같은 고산나물”은 1에 나오는 “뽀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드는 부분과 연결되어, “기진해 있단” 나는 마치 자신이 그 나물들이 된 양, 엉덩이에 꽃을 붙인 것도 모를 정도로 굵은 소나기<sup>39)</sup>를 오는 대로 다 맞는다. 산봉우리에 고여 있는 물과 그 산 위에서 내리는 물의 뒤섞임이 맺은 고요의 9로 가면, “가재도 기지 않”을 정도로 적요한 백록담의 푸른 물 위로 소나기가 그친 하늘이 돌고 있는 광경과 마주친다. 그런데 그 백록담은 “쓸쓸”하다. 여기서 나는 “기도조차 잊은”, “깨다 졸다”를 반복하는 피로함을 돌연 토로한다.

그런데 1이 육신의 기진함을 표현했던 피로라면, 제주도 자체인 한라산의 면면을 묘사한 이후 9의 피로는 조금 다른 형태이다. 이는 한라산을 당대의 현실을 대변할만한 국토로 보고 육체 가진 이를 기진하고 쇠락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형상화하면서도, 그곳의 생활과 풍광이 낙토에 가까운 곳이기에, 육체의 피로를 보답해줄만한 정신적인 절정을 보려하는 나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가깝다. 이 기대는 보답 받지 못할 기대이기에 그런 나의 기대를 담은 얼굴을 비추는 백록담은 “쓸쓸”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세밀히 해석해보기 위해 5, 6, 7에 등장했던 인간과 가까운 짐승인 목우의 이미지가 9에 다시 등장하는 까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의 “우리 새끼들”이라는 표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어미를 잃고 다른 소에게 맡겨진 송아지처럼, 소는 식민지 모국의 사람들을 투사한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의 등장과 사라짐은 예사로 볼 부분이 아니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위에는 하늘만이 비치고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

39) “뽀냇”이라는 시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시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소나기는 한나절 잠깐 장대처럼 내리는 비이므로 최동호의 해석을 따라 “뽀냇”을 “노끈을 드러운 듯 빗발이 굵고 곧게 뻗치며 죽죽 내리 쏟아지는 모양”으로 보았다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이 소는 지쳐있는 나를 돌아서 지나간다. 자연으로서 한라산은 그토록 아름다운 국토이지만, 그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타국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압박은 잊을 수 없고, 그것은 언제나 자연물의 아름다움과 청덕에 젖어 있고 싶은 시적 주체를 따라다니는 피로일 것이다. 더 이상 다리가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그 모국의 사람들—소—가 그 다리를 돌아서 갔기 때문이다.

한라산이 주는 피로는 이중적이다. ‘피로’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아름다움에 예속된 피로와 더불어 아름다움 속에 적실히 드러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도저한 피로를 동시에 의미한다. 쫓겨온 나와 같이 실구름도 쫓겨왔기에 백록담은 흐려지고 만다. 시적 주체가 당면한 국토의 현실을 오롯이 대표하는 한라산의 정점인 백록담에서 나는 그 현실—아름다운 국토이지만, 고단한 국토—을 외면할 수 없기에, 현인의 “청덕”과 같은 피로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하늘을 담았기에 하늘에 무엇이 지나가는가에 따라 백록담은 그 담는 형상이 다르다. 백록담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 담긴 백록담이 쓸쓸하고 백록담이 흐린 것이 아니라, 실구름이 비치자 백록담이 흐려진다. 결국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백록담을 바라보는 나의 상황과 태도에 따라, 시적 주체가 백록담을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백록담은 달라진다. 국토의 알레고리로서 한라산을 체험한 “나의 얼굴”에 “한나잘 포긴 백록담은 쓸쓸”할 수밖에 없다.

#### IV. 나가며

당대 문인들에게 제주도는 일종의 낙토 이미지로, 본토와 다른 이상적 공간으로 여겨졌다. 정지용 역시 기행 당시에는 당대 조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제주도를 낙토로 관념화하였으나, 이후 발표한 시에서는 제주도를 단순한 이상향으로만 그리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발표한 시 『백록

담』에서 그의 제주도 체험은 ‘한라산’이라는 산정 체험 속에 녹아들어 등장하며, 한라산은 모퉁에 복속된 종선으로서, 모퉁의 현실을 알레고리화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산문시형에 대한 그의 부단한 탐구는 단순히 새로운 시형에 대한 시인의 실험을 넘어서서, 전쟁협력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던 일본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지용 역시 전쟁협력, 친일협력의 시가 아닌 자신만의 ‘시’를 쓰고 싶었다고 할 때, 그가 의식적으로 추구한 지향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명실상부 조선의 영향력 있는 문인으로서의 정지용이면서 자유로운 이미지 안에서 정지용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시어와 시형의 모색을 해 내는 시인이어야 했다. 이 이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한 덕분에 정지용의 작품들 중 한 가운데 『백록담』이라는 작품이 창작된다.

정지용이 체험한 ‘백록담’은 국토가 결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자연을 마냥 완상할 수만은 없는 곳이다. 그곳은 ‘소’로 표상되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식민지 조선인의 실상을 잊지 못한 시적 주체의 쓸쓸한 얼굴이 포개진 백록담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아름다운 국토는 여전하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때문에 시적 주체는 백록담이 절대적인 안식의 요구인 기도조차 불가능한 공간임을 깨닫는다.

산행의 체험과 완상의 즐거움으로 인한 기분 좋은 피로의 기대는, 그 아름다운 국토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서도 고통 받아야 하는 조선의 실상을 알게 하는 체험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로 변한다. 아름다운 국토의 풍광에 취하는 피로 속에서도, 그 국토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시적 주체를 “불구”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다. 1에서 “기잔”함으로 표현되었던 피로가 즐거움을 느끼느라 여한이 없는 것에 가깝다면, 9에서 “불구”로 표현된 피로는 역사적 현실의 고통을 체험하는 자의 피로까지도 포함한 것에 가깝다. 따라서 『백록담』은 정신을 고조시키는 공간이라기보다,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그 국토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움을 동시

에 느끼는 시적 주체의 피로의 공간이며 당대 국토의 현실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K C I

## ● 참고문헌

- 정지용, 김학동 편, 『정지용 전집 2—산문』, 민음사, 2003.
- ,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
- 『동아일보』, 1934.8.2.
- , 1935.3.20.
- , 1938.8.21.
- 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근대 국토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제27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12.
-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 김학동, 『언어의 감각미와 ‘허정무위’의 세계』,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97.
- 김신경,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 김윤경,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의 기행산문 연구』, 『비평문학』 제5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5.3.
- 김진희, 『나—조선의 발견과 시의 탄생—정지용과 백석의 기행산문과 시』, 『서정시학』 제22권 3호, 2012.9.
- 문혜윤, 『국토 여행과 ‘조선시’의 형식—정지용의 「장수산2」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12.
- 유종호 외 31인, 『현대 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 이광호,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선 주체의 형성과 변이』, 『어문논집』 제64호, 민족어문학회, 2011.
- 이승원, 『초기시와 시의식의 형성』,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 신지연, 『신시논쟁(1920~21)의 알레고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 장만호, 『한국 근대 산문시의 형성과정 연구—1910년대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민족문화연구』 제1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6.
- , 『정지용의 「장수산」과 「백록담」』, 『정지용 시와 비평의 고고학』, 서정시학, 2013.
-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최동호·맹문제 외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2003.



하재연, 『근대시의 모험과 움직이는 조선어』, 소명출판, 2011.

황종연, 「『문장』과 문학의 정신사적 성격」, 『동악어문학』 제21호, 동악어문학회, 1986.10.

황현산, 「불모의 현실과 너그러운 말」, 『잘 표현된 불행』, 문예중앙, 2012.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2002.

- 주제어 : 정지용, 백록담, 다도해기, 산문시, 피로, 알레고리, 국토, 낙토, 한라산, 조선

접 수 일	2015년 6월 29일
심 사 일	2015년 7월 21일
게 재 확 정 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 Mt. Halla, the Allegory of National Territory

— View on ‘Baengnokdam’ of Jung Ji-Yong

Kim, Bok-Hui  
(Korea University)

Agreeing to the common notion that the narrative in ‘Baengnokdam’ of Jung, Ji-Yong achieve a special poetic accomplishment, this manuscript tries to add the connection among verse poems and with ‘Dadoheagi’ in which the poet's experience in Jeju to existing interpretation of ‘Baengnokdam’.

His constant exertions for pros poems is not less than just his experiment about a new form of poem. Rather, considering the fact that like the Japanese literary who didn't want to engage in the war, Jung, Ji-Yong wanted to write his own “poem”, but not pro-war poetry and pro Japanese imperialism poetry, it should be deemed as his conscious orientation.

While his other pros poetry in *Beangnokdam*, the book, usually contains one narration whose direction adopts ‘nature(mountain)’ as its background, as an abstract image to realize supra-historical themes such as life or death, the poet has a different intention in ‘Baengnokdam’ from the point that it allegorically realizes the territorial context in Joseon, the history. To Jung, Ji-Yong, Jeju is not a original place that represent Joseon, the island is where is surely connected to Joseon peninsula, and a dinghy that calls at the continent, Joseon should not forget.

● **Key Words** : Jung, Ji-Yong, Baengnokdam, dadoheagi, pros poetry, allegory, fatigue, Joseon